

‘벼랑끝’ 소아과...대학병원 50곳 중 38곳 레지던트 0명

61개 대학병원 상반기 레지던트 모집 결과 소아청소년과 확보율 2년 만에 36%→20% 레지던트 모집정원 다 채운 곳 서울대병원뿐 모집정원 절반 넘긴 곳 울산대병원 등 4곳뿐

환자의 생명을 살리는 필수 의료 중 하나인 소아청소년과(소정)가 의사 수 부족과 저출산, 낮은 수가(진료비) 등으로 ‘구인난’에 허덕이고 있다. 상반기 레지던트 확보율은 3년 연속 하락세를 거듭해 올해 20%에 그쳤다. 전문 인력 부족으로 인한 진료대란

을 막으려면 인력 확충과 수가 개선 등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이 최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61개 대학병원의 2023년도 상반기 레지던트 모집 결

과, 전체 과목의 모집정원 대비 확보율은 84.1%로 집계됐다.

진료과목별로 살펴보면 의료법상 필수진료과목인 진단검사의학과는 지난해 97%에서 94%로 소폭 하락했다. 특히 필수진료과목 중 소정과 모집정원 확보율은 20%로 상반기 전체 확보율(84%)의 4분의 1에도 못 미쳤다. 2021년(36%), 2022년(22%)에 이어 하락을 거듭하고 있다.

소정과 레지던트 모집정원이 있는 50개 대학병원 중 76%(38개)는 레지던트를 단 한 명도 확보하지 못했다. 모집정원을 다 채운 곳은 서울대병원 유일했다. 50%를 넘긴 곳도 순천향대서울병원, 아주대병원, 전남대병원, 울산대병원 등 4곳에 불과했다.

지난해 말부터 의사 부족으로 수도권 소재 병원들을 중심으로 소정과 입원 치료와 응급실 야간 진료를 중단하는 사태가 벌어지면서 진료체계 붕괴가 우려되는 가운데

흉부외과·산부인과 등 과목별로 레지던트 정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명의 전공의도 확보하지 못한 병원들이 여러 곳이었다. 병원 18곳은 흉부외과 전공의를 단 한 명도 받지 못했다. 산부인과 16곳, 외과 17곳, 병리과 21곳의 전공의 지원자도 0명이었다. 모집정원을 모두 확보한 진료과목은 성형외과, 정형외과, 피부과, 이비인후과, 정신건강의학과, 안과, 재활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영상의학과, 신경과, 신경외과 등 11개 과목이었다. 마취통증의학과·영상의

학과는 모집정원 대비 확보율이 전년에 이어 100%였고, 내과·외과·산부인과·병리과 등은 전년 대비 증가했다.

서 의원은 “필수진료 인력 확보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면서 “의대 정원 증원 같은 인력 확충과 필수진료 수가 개선 등이 동시다발적으로 과감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 국립중앙의료원 신축 이전 사업 예산을 삭감하고 규모를 축소할 윤석열 정부의 결정은 인프라 확충에 반하는 행태인 만큼 반드시 재고돼야 한다”면서 “과감한 재정 투자가 담보되지 않은 정부의 발표는 국민을 속이는 기만 행위나 다름없다”고 덧붙였다.

최이슬기자



매화 활짝 핀 서귀포

강한 바람이 불어 추운 날씨를 보이는 20일 오후 제주 서귀포시 칠십리 시공원에 매화가 활짝 피 시선을 끌고 있다.

소개팅 후 ‘더치페이 잘못됐다’ 3500원 요구 ‘화제’

네티즌 “더치페이하는 건 좋으나 저 정도는 지나친다”

소개팅 상대가 데이트 비용 3500원을 덜 냈다며 정확한 더치페이를 요구한 30대 남성의 사연이 공개됐다.

지난 17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에는 ‘첫 소개팅 후기 및 고민(비용 정산 완료)’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33세 공무원 작성자 A씨의 글에 따르면 최근 28살 여성 B씨와 소개팅을 했다고 밝혔다. A씨는 “8만7000원의 비용이 나왔는데 상대 여성이 4만원만 계산했다”며 “첫 만남이고 또 갈

이 먹는 거니까 당연히 반반씩 하는 게 맞지 않느냐”라고 적었다.

이어 A씨는 B씨와 주고받은 메시지를 공개했다. A씨는 “다름이 아니라 좀 의문점으로 남는 게 있다”라며 “밥값이 총 8만7000원 나왔는데 계산대에서 4만원만 계산하셨더라. 아직 연애하는 사이는 아니니 정확하게 반반 계산했으면 한다”라고 했다.

B씨는 즉각 3500원을 송금했다. A씨는 이를 수령하며 “기본 나쁜 건 아니시죠? 혹시나

해서 여쭙봐요 다음에도 시간 되실 때 저녁 한번 같이 먹었으면 하는데 언제쯤 괜찮으실까요?”라고 보냈다.

하지만 B씨는 답장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본 네티즌들은 “3500원 덜 낸 없으면 연애하지 말고 혼자 살라” “더치페이하는 건 좋으나 저 정도는 지나친다” “저러고 다시 애 프터 신청하는 게 이상하다” “이런 사람이랑 사귀면 피곤할 듯”이라는 등의 반응을 남겼다.

김재환기자

제주 해상 고등어 싹쓸이 중국 어선 2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 어류 9t 불법 조업 쌍타망 어선 적발

제주 해상에서 불법 조업을 한 중국 어선 2척이 관계당국에 적발돼 나포됐다.

남해어업관리단은 지난 18일 오전 10시께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인근 185km 해상에서 조업금지 미기재 등의 혐의로 중국 쌍타망 어선 A호(297t·승선원 14명)와 B호(297t·13명)를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관리단에 따르면 A호와 B호는 이달 1일 오후 8시께 우리나라 배타적경제수역(EEZ)에 입역해 18일 걸려 전까지 고등어 등 어류 9000kg 가량을 불법 조업한 것으로 조사됐다. 쌍타망 어선은 배 2척에 그물을 매달아 바다 밑을 쓸

고 가는 방식의 어선이다.

이들은 조업 일지를 작성하지 않고 EEZ 입역 당시 적재한 어획물을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18일 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 무궁화 3호에 의해 나포된 A호와 B호는 각각 담보금 4500만원을 내고 석방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 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우리나라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입역 시 적재된 어획량을 보고해야 한다. 또 어획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에 어획량을 기재해



야한다.

김영진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최근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들이 입어 절차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며 “점점 지능화되는 중국어선의 불법 조업을 막고 우리수역 내 어업질서 확립을 위해 강력한 단속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선욱기자

신문인쇄 전문기업 (주)남도프린테크

(주)남도프린테크는 신문사 법인설립, 신문발행업 등록, 편집, 인쇄까지 토탈 서비스 가능한 업체입니다.

믿고 맡겨주시면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광주·전남 최초로 신문윤전판 출력시스템 도입
- 월등한 색상 구현력에 더러움 현상은 최소화!
- 최상의 인쇄 품질로 고객 만족을 실현하겠습니다

(주)남도프린테크

광주광역시 광산구 평동로803번안길 93-10(용동) 평동산단 3번도로 끝

Tel : 062)943-0135~6 Fax : 062)943-0134 담당자 : 010-2656-4747(장상문 전무)

